

## 다산포럼

민 병 육



지난번 칼럼 '컴퓨터 시대에 웬 책?'을 읽고 의견을 보내온 분이 꽤 있었다. "컴퓨터가 종이책의 자리를 차고 앉은 게 언젠데 새삼스럽게 책 타령이나?"부터 "정부 국민이 운동 경제, 경제, 경제 얘기뿐이니 책문화의 쇠락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지적까지 다양했다. 재미있는 것은 뜻을 전한 모두가 한 가지 이상 종이책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갖고 있으며 그걸 무척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책 예찬론자들은 종이책이 컴퓨터보다 훨씬 '쓸모'가 많다고 주장했다. 들고 간 책 한 권 덕에 연애나 취직, 출세에 성공한 사람이 참 많았다. 좀 어려운 제목의 교양 서나 예쁜 시집, 고품격 시사지 등을 들고 나다면 상대가 그야말로 '존경의 염'을 감추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거기 책 속 멋진 글귀를 눈으로 감고 읽을라치면 지난첩보다 세게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컴퓨터를 들고 갔다면 그 렇게 사람을 끌진 못했을 게 분명하다.

우스갯소리로 도구로서 책의 유용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적잖았다. 뜨거운 치개념비를 책으로 들거나 받침으로 썼다는 것이다. 하숙생 시절 친구 여름이 들려온 책 위에 올려놓고 후후 불며 먹은 음식

## 종이책은 죽지 않는다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교사들은 출석부와 함께 회초리 대용품으로 책을 쓴 일이 있고 파리, 모기 등을 쫓거나 잡는데도 책을 사용했다. 눈 비울 때 우산, 빛ning과 미주쳤을 때의 일걸 가리개, 책걸상 디리의 균형자, 배기, 덮개, 망치, 도배기, 부채, 불쏘시개, 신분증 등의 쓰임새도 책은 활용하게 수행했다.

월급쟁이들은 비자금 은닉처, 숨은 지갑으로 책을 애용했다고 말했다. 무심코 옛 책을 뒤적이다 만 원짜리 몇 장이 뿐여질 때의 행복감을 잊을 수 없더라는 것이다. 물론 요즘 눈으로 보면 변종 아니면

기다. 봄, 가을엔 꽃잎과 낙엽을 책갈피에 껴놓아 '그 해의 내 마음'을 기록해놓았다는 사람, 헌책방 책에서 옛 친구 이름을 발견하고 상념에 젖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는 "흙인서약 등 종교재배 때나 법정에서 컴퓨터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모습을 상상해본 적이 있느냐?"는 반여법

으로 종이책의 암숙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컴퓨터가 책의 임무를 떠맡았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책이 지난 부피, 쓸모, 눈에 띄임과 그 정서적 크기를 전면 부정하진

않으므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 숨 돌려보자. '꽃밭에 넘어진 소녀가 정강이에 난 피에 놀라 올다 보니 빨간 꽃 잎이었네' 이야기가 실린 초등학교 국어 책을 기억하는가. 경제, 경제하니 애긴데 요즘 그런 책은 상태만 좋으면 50만원도 받는다고 한다.

조선 말기 군자나 한글소설, 옛 잡지도 몇 백 권을 훌쩍 넘겨받는다. 옛 것, 특히 서화나 전적이 돈 되는 세상이 온지 오래 됐다. 지금 컴퓨터에 밀리는 종이책들이 이 많아 휴대폰 수집품이 된다면 바로 그를 겨냥한 출판진흥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독판 책, 금속활자 책 모두 세계 최고(最古)를 자랑하면서도 그 맥을 잊지 못한 아쉬움을 21세기 출판대국, 독서강국으로 보상 받자고 하면 꿈같은 얘기일까. 장사속으로라도 인류문화 유산으로 남을 만한 종이책을 만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

요즘 돈을 벌어주는 컴퓨터 정보산업만 예지중지하고 당장 돈이 안 되는 종이책 독서출판계에 흘기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 해보는 말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김 기호

기 고

이승옥

프로축구단 창단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광주시는 아직 이렇다 할 발표가 없다. 2002년 6월 월드컵 8강전 대 스페인전에서 한국대표팀이 승부차기에서 이기고 4강에 올랐다. 그때의 감동과 명승부가 '광주 프로구단 창단'에 박차를 가하게 했고, 2004년 군인 신분의 선수로 구성된 광주상무프로축구단이 K-리그에 동참했다. 당시 광주시가 가입금을 10억원과 축구발전기금 30억원을 프로연맹에 내고 '5년 안에 프로팀을 창단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로부터 5년째인 올해 3월 프로축구 단창단추진위원회(이하 TF팀)가 구성

을 출자하기로 하는 등 113억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객관적인 조건에서 강원FC는 광주시보다 열악하다. 가장 큰 도시인 원주·강릉·춘천시는 인구가 30만명 내외이고 지붕 있는 3만5000석 이상 규모의 운동장도 없다.

전국 6대 도시 중 운전한 프로축구단이 없는 도시는 광주시 뿐이다. 마감시 한인 5년째에 출범한 TF팀은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 기업구단 창단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구단 창단 시도는 철저히 배제했다. TF팀은 시민의 힘을 결집하는 데 실패했다. 아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 광주 프로축구단 창단 가능하다

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처음부터 '기업구단'에 초점을 맞춘 TF팀은 지역과 연고가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한국전력과 협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TF팀은 기업구단 창단을 추진해 되어 의의치 않은 경우 시민구단 창단을 모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창단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9월 실업리그 최강 울산 현대미포조선이 광주시에 창단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었다. 미포조선은 광주시가 시민구단으로 운영하기를 바랐고, 광주시는 독립적인 기업구단 창단을 원했다. 결국 광주는 지난달 말 상무와의 연고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요청서를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다.

강원도의 신속한 창단 추진은 광주시와 선명하게 대비된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이하 강원FC)은 지난 9월 22일부터 1개월동안 도민주 공모를 실시한 결과 6만8천890명의 개인 및 법인이 참여해 60억7천000만원(121만4천374주)을 정액으로 광고 후원금 등으로 32억원을 확보했다. 또 강원랜드 등이 20억원

을 출자하기로 하는 등 113억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객관적인 조건에서 강원FC는 광주시보다 열악하다. 가장 큰 도시인 원주·강릉·춘천시는 인구가 30만명 내외이고 지붕 있는 3만5000석 이상 규모의 운동장도 없다.

전국 6대 도시 중 운전한 프로축구단이 없는 도시는 광주시 뿐이다. 마감시 한인 5년째에 출범한 TF팀은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 기업구단 창단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구단 창단 시도는 철저히 배제했다. TF팀은 시민의 힘을 결집하는 데 실패했다. 아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창단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9월 실업리그 최강 울산 현대미포조선이 광주시에 창단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었다. 미포조선은 광주시가 시민구단으로 운영하기를 바랐고, 광주시는 독립적인 기업구단 창단을 원했다. 결국 광주는 지난달 말 상무와의 연고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요청서를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다.

강원도의 신속한 창단 추진은 광주시와 선명하게 대비된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이하 강원FC)은 지난 9월 22일부터 1개월동안 도민주 공모를 실시한 결과 6만8천890명의 개인 및 법인이 참여해 60억7천000만원(121만4천374주)을 정액으로 광고 후원금 등으로 32억원을 확보했다. 또 강원랜드 등이 20억원

을 출자하기로 하는 등 113억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모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생쥐를 시멘트와 황토 모형집에 암수 5마리씩 넣고 4주동안 생장과정을 관찰한 결과, 시멘트 모형집의 쥐는 6마리가 폐사했으나 황토 모형집에서는 10마리가 모두 생존했다. 실험에서 보듯 이 전통 한옥은 삶을 위한 생활공간만이 아니라 생명을 담는 소중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경제성, 편리성으로 측면에서 푸대접을 받아 왔던 한옥이 이제는 삶을 건강하게 해줄 주체가 되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 한옥을 신축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과 민박을 실

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한옥을 널리 보급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5년 말에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해 마을 10동 이상 한옥을 신축할 경우 2천만 원을 보조(시군에 따라 2천만원 별도 보조)하고, 연리 2%의 저리로 3천만원 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도내에서는 한옥 건축 붐이 일고 있다. 도에서 한옥 신축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을 이를 통해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자원화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 한옥을 신축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과 민박을 실

## 웰빙시대 한옥의 재발견

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모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생쥐를 시멘트와 황토 모형집에 암수 5마리씩 넣고 4주동안 생장과정을 관찰한 결과, 시멘트 모형집의 쥐는 6마리가 폐사했으나 황토 모형집에서는 10마리가 모두 생존했다. 실험에서 보듯 이 전통 한옥은 삶을 위한 생활공간만이 아니라 생명을 담는 소중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경제성, 편리성으로 측면에서 푸대접을 받아 왔던 한옥이 이제는 삶을 건강하게 해줄 주체가 되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 한옥을 신축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과 민박을 실

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한옥을 널리 보급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5년 말에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해 마을 10동 이상 한옥을 신축할 경우 2천만 원을 보조(시군에 따라 2천만원 별도 보조)하고, 연리 2%의 저리로 3천만원 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도내에서는 한옥 건축 붐이 일고 있다. 도에서 한옥 신축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을 이를 통해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자원화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 한옥을 신축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과 민박을 실

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한옥을 널리 보급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 가장 먼저 행복마을로 지정된 한옥을 신축할 경우 2천만 원을 보조(시군에 따라 2천만원 별도 보조)하고, 연리 2%의 저리로 3천만원 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이번 노력으로 도내에서는 한옥 건축 붐이 일고 있다. 도에서 한옥 신축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을 이를 통해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자원화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 한옥을 신축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과 민박을 실

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한옥을 널리 보급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 가장 먼저 행복마을로 지정된 한옥을 신축할 경우 2천만 원을 보조(시군에 따라 2천만원 별도 보조)하고, 연리 2%의 저리로 3천만원 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이번 노력으로 도내에서는 한옥 건축 붐이 일고 있다. 도에서 한옥 신축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을 이를 통해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자원화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 한옥을 신축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과 민박을 실

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한옥을 널리 보급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 가장 먼저 행복마을로 지정된 한옥을 신축할 경우 2천만 원을 보조(시군에 따라 2천만원 별도 보조)하고, 연리 2%의 저리로 3천만원 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이번 노력으로 도내에서는 한옥 건축 붐이 일고 있다. 도에서 한옥 신축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을 이를 통해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자원화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 한옥을 신축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과 민박을 실

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한옥을 널리 보급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 가장 먼저 행복마을로 지정된 한옥을 신축할 경우 2천만 원을 보조(시군에 따라 2천만원 별도 보조)하고, 연리 2%의 저리로 3천만원 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이번 노력으로 도내에서는 한옥 건축 붐이 일고 있다. 도에서 한옥 신축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을 이를 통해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자원화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 한옥을 신축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과 민박을 실

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한옥을 널리 보급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 가장 먼저 행복마을로 지정된 한옥을 신축할 경우 2천만 원을 보조(시군에 따라 2천만원 별도 보조)하고, 연리 2%의 저리로 3천만원 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이번 노력으로 도내에서는 한옥 건축 붐이 일고 있다. 도에서 한옥 신축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을 이를 통해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자원화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 한옥을 신축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과 민박을 실

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한옥을 널리 보급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 가장 먼저 행복마을로 지정된 한옥을 신축할 경우 2천만 원을 보조(시군에 따라 2천만원 별도 보조)하고, 연리 2%의 저리로 3천만원 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이번 노력으로 도내에서는 한옥 건축 붐이 일고 있다. 도에서 한옥 신축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을 이를 통해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자원화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 한옥을 신축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과 민박을 실

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한옥을 널리 보급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 가장 먼저 행복마을로 지정된 한옥을 신축할 경우 2천만 원을 보조(시군에 따라 2천만원 별도 보조)하고, 연리 2%의 저리로 3천만원 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이번 노력으로 도내에서는 한옥 건축 붐이 일고 있다. 도에서 한옥 신축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을 이를 통해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자원화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 한옥을 신축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과 민박을 실

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한옥을 널리 보급하는 시책을 펼친 것이다.

이번 노력으로 도내에서는 한옥 건축 붐이 일고 있다. 도에서 한옥 신축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을 이를 통해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자원화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 한옥을 신축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과 민박을 실

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한옥을 널리 보급하는 시책을 펼친 것이다.

이번 노력으로 도내에서는 한옥 건축 붐이 일고 있다. 도에서 한옥 신축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을 이를 통해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자원화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 한옥을 신축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과 민박을 실

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한옥을 널리 보급하는 시책을 펼친 것이다.

이번 노력으로 도내에서는 한옥 건축 붐이 일고 있다. 도에서 한옥 신축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을 이를 통해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자원화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 한옥을 신축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과 민박을 실